

# “農道 전남 쌀 값 전국 최하위”

## ■농수산위 최규성 의원 국감자료

올들어 전남에서 생산된 쌀이 전국에서 가장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쌀은 또 과거 수년간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할값에 팔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17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전남에서 생산된 쌀값(정곡 80kg 기준)은 15만8천536원으로 전국 평균가격 16만5천180원보다 7천544원이나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

80kg당 15만8,536원...전국 평균 크게 못 미쳐

“브랜드 파워 떨어지고 건조 저장시설 부족”

쌀은 전국 최고가인 경기 쌀(18만8천388원)에 비해서는 2만9천852원이나 싼다.

전남 쌀값은 과거에도 전국 평균치 보다 크게 낮아 지역 쌀 재배 농민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전남 쌀 판매가는 지난 2004년 16만1천513원(전국 평균 16

만5천553원), 2005년 14만9천551원(15만4천572원), 2006년 13만9천968원(14만3천898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4만6천211원(14만9천961원)을 기록했다.

전남 쌀은 또 2004년과 2005년에는 전북에 이어 두 번째, 2006년과 지난해에는 충남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가격이 싼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남 쌀이 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은 건조 저장시설 부족 등으로 미질 유지가 어렵고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의원은 “수확기 흡수 출하를 막고 건조 저장시설을 늘리며 브랜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으로 쌀값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은 2004년 96만2천522t, 2005년 92만213t, 2006년 89만2천241t, 지난해 81만6천147t 등 전국 시·도가운데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시 설

### 고속철도 무안공항 연계 ‘거부’ 재검토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에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타당성 조사 결과, 무안공항~목포 노선에 경제성이 없어 송정리~목포 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 또 무산될 위기에 있어 안타깝다.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하게 되면 설계 변경 등이 뒤따르고 투자 규모에 비해 연계 수송력이 적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전북의 새만금 지구 개발에 맞춰 군산공항 확장까지 추진되고 있어 무안공항은 광주·전남 지역 공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새만금지구 개발에 적극 나서며 군산공항을 확장기로 했다. 철도시설공단도 군산공항을 전제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문제에 결론을 내렸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철

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무안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호남선에 국제공항을 또 건설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 공항 모두 활성화는커녕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은 경제성만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단순히 경제성으로 판단해선 SOC가 빈약한 호남은 영원히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된다.

정부는 무안공항 활성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항이 고속철도와 연계되면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문제를 재검토하기 바란다.

### 실물경제 위축 ‘가속화’ 대책 서둘러야

금융경색에서 비롯된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장은 국제공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걱정이다.

각종 실물경제지표는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은 최근 증가세가 급격히 꺾이고 있다. 수출 부진은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을 비롯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수출의 급격한 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

투자도 소비도 공공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동기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7월 9.9%에서 8월 1.6%로 내려앉았다. 소비재판매 증가율도 3.9%에서

1.5%로 떨어졌다. 기업은 돈줄이 막혀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호주머니가 얇아해진 국민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시장도 썰렁하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는 11만명대에 그쳤다. 특히 광주의 실업률은 4.1%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악화시키고 실물경제가 다시 금융부문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금융위기가 내년에 해소되더라도 실물경제는 오랫동안 침체를 벗어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지방과 중소기업,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 금융·실물 동시 처방...정부 전방위 대책 착수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실물경제마저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들어가자 정부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처방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은행의 외환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증시 안정을 위한 장기 주식형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실물경제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된다.

특히 한국은행은 17일 경쟁입찰 방식의 스왑과 거래제도를 도입해 대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입찰을 통해 직접 시중은행에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은행 간 거래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데 이어 3년 이상의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공제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증권거래세를 내리고 펀드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손절 기준을 완화하고 투매에 나서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가급적 다음 주에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건설업계 지원방안도 내용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 2015 하계 U대회 광주 유치 청신호

### 加 에드먼턴 등 8개 도시 유치 의향서 제출

### 강력한 라이벌獨 함부르크는 접수 안해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5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2015년 하계 U대회 유치의향서를 마감한 결과 6개국에서 광주시를 포함한 8개 도시가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

스포츠 인프라와 도시경쟁력에서 광주시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독일 함부르크는 의향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

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1983년 U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역량을 검증받은 캐나다 에드먼턴이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만 타이페이와 스페인 비고, 그라나다가 재도전에 나섰다. 브라질에서는 브라질리아와 리오 2개 도시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캐나다 에드먼턴, 폴란드 포즈난 등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는 독일 함부르크가 유치에 나서지 않아 안도하고 있으나 대회 유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페인 비고가 2013년 대회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데다 나머지 도시의 저력도 선별된 예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폴란드 포즈난의 경우 지난 2007년~2013년 대회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유치의향서를 낼 만큼 대회 유치를 꾸준히 준비해온 도시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정부 승인을 얻어 대회 유치를 설립하고 경쟁도시를 압도할 수 있는 치밀한 유치전략을 세울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폐광촌’ 나주 공산면 신곡리 덕음마을

## 청산가리 기준치 656배 초과 검출

### 국회 지경위 주승용 의원 밝혀

### 아연도 56배 초과...환경오염 심각

폐광촌인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덕음마을 토양에서 청산가리(Cn)가 기준치의 656배, 아연은 56배, 카드뮴은 8.6배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덕음마을 주민들이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공학기기센터에 의뢰해 토양 중 금속 오염도를 측정할 결과, 청산가리는 기준치(2mg/kg)의 656배(1,312.5mg/kg)가 검출됐으며 카드뮴은 8.6배(12.99mg/kg), 아연은 56배(16,972mg/kg)에 달했다.

덕음마을의 토양오염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1994년으로 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당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 당시 광산에서 400m 지점까지의 토양과 농업용수 및 하천 퇴적물이 카드뮴·납·아연 등 중금속에 오염됐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월북 무용가’ 최승희 중년 모습 사진 공개



세계적인 월북 무용가 최승희(崔承熙·1911~1969)의 중년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남북 지역재산권 교류사업을 펴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17일 최승희가 51세였던 1962년에 찍은 독사진 1장과 1956년 동유럽 방문 때 찍었다는 기념사진 5장을 공개했다.

이들 사진은 북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와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재단측은 1960년대 제작된 최승희의 ‘부채춤’과 ‘장구춤’ 영상의 저작권을 북측으로부터 위임받아 지난해 남북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하기도 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제공

## 이르면 연내 ‘무비자’ 美 여행 가능

### 부시, 한국 등 7개국 비자 면제국 발표

### 유학·취업 목적엔 비자 발급 받아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 오전 11시(미동부시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국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부터는 VWP의 적용을 받게 돼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라면 90일 이내로 비자없이 미국 여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과거에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이들은 여전히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VWP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이내로 체류해야 하며 ▲전자여행허가 사이트를 통해 입국이 가능함을 통보받아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면제가 된다해도 전자여행허가절차는 거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절차는 지금의 비자발급 절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간략해 비행기에서 작성하는 입국 신고서 정도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여권에 이미 미국 비자가 있다면 VWP와 관계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도 없고 ESTA 사이트에서 입국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번 조치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이걸로 털어내면 될 걸...

### 코스피 3년만에 1,100대 추락...환율도 39원 ↓

코스피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했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1,200선마저 함입이 무너지면서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증시반등과 외환당국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하루 만에 다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9.00원 떨어진 1,334.00원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37포인트(2.58%) 오른 1,245.15로 출발했으나 기관의 매도에 1,200선을 내준 뒤 순식간에 1,166.88까지 밀리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증시반등과 외환당국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하루 만에 다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9.00원 떨어진 1,334.00원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 崔秉	편집장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2-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광고마케팅부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